

***랜드스케이프 개념 재유형화에 따른 한국현대건축의 경향분석

Trend Analysis of Contemporary Korean Architecture according to the recategorization of the notion of Landscape

윤갑근* / Yoon, Gab-Geun
김기완** / Kim, Ki-Wan

Abstract

It has been a recent phenomenon over 1980-1990s that the notion of Landscape has had significant position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And the execution range isn't limited to a certain area but is extended to various areas. Under such influence of trend of the times, various architectural attempts in which landscape notion is applied have been tried by the group of architects of our country which are mainly composed of young architects. This study aims to derive the features of landscape appearing in our contemporary architecture by analyzing how Landscape notion is embodied in our Landscape architecture which are claiming the expression of Landscape notion as nature, human beings and view.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uggest the limitation and the direction to go through of Korean Landscape architecture through the analysis of such features. Through the recategorization of the Landscape notion, this study reviews the features in detail shown in buildings in Heyily Art Valley which were built strongly based on the expression of the Landscape notion, the art works in Paju City of Publishing Industry and other Landscape buildings. The findings of the review show that Landscape architectural notion has been attempted not only in a certain facilities but also in various genres of architecture. And also it shows that the expression of Landscape notion is performed not by various ways but by only limited ones which are preferred.

키워드 : 한국현대건축, 재유형화, 랜드스케이프 개념 및 경향

Keywords : Korea contemporary architecture, Recategorize, Landscape notion & trend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7년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새로운 영토, 새로운 랜드스케이프'는 현대건축이 본격적으로 '랜드스케이프'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대표적인 전시회로 꼽힌다. 이 전시회에서 현대건축의 랜드스케이프 개념을 4가지 유형으로 범주화하였으며 그 개념의 결정적인 변화는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사이에 가정되었던 안정적 관계성의 상실'이었다. 즉, '건축물과 장소, 오브제와 배경사이의 종속적인 관계가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의 영향 하에 우리나라 신진 건축가들을 중심으로 랜드스케이프의 개념이 적용된 다양한 건축적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 계획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구체적인 평가와 현대 건축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아직 설정되어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연과 인간, 풍경으로서의 랜드스케이프 개념을 표방한 우리나라 랜드스케이프 건축물들의 특성을 Eduard Bru의 구축 개념을 재유형화 한 새로운 틀로써 비교·분석하여 현대 건축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 대상 및 방법

플로리안 베이겔은 '17세기 네덜란드 풍경화가들이 장면(scenery)으로 여긴 개념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시 자체가 풍경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개념으로 랜드스케이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였던 바와 같이 현대의 랜드스케이프는 기존의 전원 풍경 또는 조경 개념과 다른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그의 위상은 그가 주장해온 '건축적 랜드스

* 이사, 조선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 정희원,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미술학석사

*** 본 연구는 2006년 조선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케이프'(architectural landscape)가 한국 건축계의 주요한 화두로 등장했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건축적 랜드스케이프'란 자연과 인공물이 대립하지 않고 서로 녹아들어 가면서 융화되게 하는 최소한의 건축디자인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인식의 바탕에는 자연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구조에 가까이 접근함으로써 나온 인공환경을 만들어낸다는 전략이 담겨 있다.¹⁾ 본 연구는 선행연구²⁾에서의 랜드스케이프 건축개념 재유형화를 통해 헤이리 아트밸리, 파주 출판산업단지 건축물과 이곳에서 활약하였던 건축가들의 다른 지역 작품들을 주 대상건축물로 선정하였다. 재유형화를 통해 도출된 랜드스케이프 개념을 분석의 틀로 삼고 한국현대건축에서 그 개념이 어떠한 방법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조사 분석하고, 이를 통해 그 한계점과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새로운 구축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분석개요

2.1. 분석의 틀

본 연구에서는 한국 현대건축에 나타난 랜드스케이프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Eduard Bru의 구축 개념(침투, 랜드마크, 경계, 내부의 풍경)들을 재유형화된 새로운 틀<표 1>에 따라 침투, 경관, 경계, 불확정성, 구축의 연속성, 유기성 등의 유형으로 분석하였다.

2.2. 사례 분석개요

본 연구에서 대상은 국내에서 '랜드스케이프' 개념을 내세우며 한국의 건축가들이 공동으로 작업한 헤이리 아트밸리, 파주 출판산업단지내의 작품, 그 외 랜드스케이프 개념을 구현한 작품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헤이리 아트밸리의 경우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환경친화, 생태)을 수용하고 현자연의 지형, 지세를 최대한 보존 이용하고 접근성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토지이용계획으로 랜드스케이프 건축개념을 반영한 단지이며, 파주출판산업단지는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는 중심기

지로서 역할을 담당할 목적으로 국제적 문화정보교류 및 공연 전시 등이 이루어지는 문화관광지로 조성된 곳이다. 단지 구성은 출판사, 인쇄소, 제본소 등이 있는 생산지구와 서점, 도서관, 유통창고, 은행 등이 있는 유통센터, 전시장, 박물관, 출판 연구소 등이 있다. 단지의 건축물들은 환경친화적 생태도시를 지향하며, 랜드스케이프적 건축을 추구하고 계획되어졌다. 이처럼 헤이리나 파주 출판단지의 경우 대규모로 조성된 문화예술 마을로서 최초 계획당시부터 마스터플랜에서 랜드스케이프, 즉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공간을 조성하는 친화적인 공동체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국내의 헤이리 아트밸리와 파주 출판산업단지 건축물들을 본 연구의 주 대상으로 하고 이곳에서 활약하였던 건축가들의 다른 지역 작품들을 선정하여 어떠한 특성으로 랜드스케이프 개념을 보여주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3. 건축물 용도별 랜드스케이프 표현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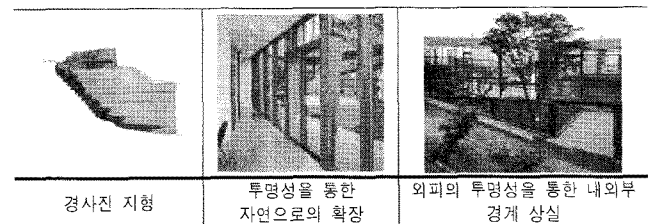
3.1. 주거건축의 랜드스케이프 표현

(1) H 주택

H 주택은 가파르게 경사진 대지의 정점과 맞닿은 도로의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출입한다. 한국에서 경사진 지형에 주택을 건축하는 보편적 방법으로는 경사진 부분을 메우고 옹벽을 세우는 것이다. 따라서 H 주택 또한 건축물을 위한 중립적인 수평의 땅을 만들기 위해 부분적으로 매립시키고 있으며 건축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 경계 - 투명성을 통한 내-외부 경계의 상실
- 외피는 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산세 표피와 관련하여 근원적 자연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한다. 투명한 유리박스를 노출시킴으로써 주변 환경을 주택 내부의 사람들에게 보여줌과 동시에 주택 내부의 풍경을 드러내기도 한다. 내부와 외부 사이의 매개체인 외피는 주변의 자연적 환경을 위해 외부를 향해 열려 있으며 주택 내부를 노출, 확장하는 동시에 외부의 풍경이 물리적으로 투영되는 스크린의 역할도 한다.

<표 2> 내-외부 경계의 상실



(2) 헤이리 스튜디오

- 경관 - 풍경으로서의 건축
- '땅이 가지고 있는 비공간적 성격, 본질적으로 건축이 가질 수 없는 차이점을 참조하여 만들어내는 건축적 공간'을 지향점으로 하고, '자연환경을 최대한 유지시키는 것'이 헤이리 아트

<표 1> 분석의 틀

유형	개념의 구현 방법
침투	보이드 구축을 통한 경계침투
	도시와 자연의 맥락의 확장
	실제와 가상의 중재를 통한 침투
경관	풍경으로서의 건축
	경관을 도입하여 영토적 스케일의 확장
	투명성을 통해 내부의 풍경 표출
경계	외피의 투명성을 통해 자연의 풍경 도입
	경계의 중재를 통해 경계 소멸
	내부와 외부의 경계 상실
불확정성	물리적 요소의 경계 상실
	Patch에 의한 긴장감 추구
	프로그램의 불확정성
구축의 연속성	비용을 통한 불확정성
	동선을 통한 불확정성
	경계의 구축
유기성	대지 연장을 통한 경계의 구축
	경사진 판에 의한 대지의 연장경계소멸
	삽입에 의한 자연의 연속
자연 환경의 맥락적 표현	자기조직화에 의한 유기적특성
	자연 환경의 맥락적 표현

1) <http://blog.naver.com>

2) 윤갑근, 랜드스케이프 건축개념의 재유형화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6권 2호 통권61호, pp.105-114

밸리의 목표3)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주변 풍경에 흡수되는 '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콘크리트 뼈대 사이에 유리가 끼워져 있는 르자 형태로 재료의 물성이 두드러지고 정면은 이동 가능한 불투명 슬라이딩 도어와 투명한 유리가 대비되



<그림 1> 르 자형의 들속의 풍경

어 가변적인 입면의 풍경을 연출할 수 있으며. 내부에 슬라이딩 도어, 패널, 비워진 공간 등으로 수직적·수평적 커를 주어 스튜디오는 여러 가지 풍경의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풍경으로써 존재하기도 하지만 건축가는 이 보다 이 건물이 풍경을 담아내기 위한 '틀'로써 작용되기를 의도하고 있다.

(3) 한길 아트 스페이스 3

헤이리 북동쪽에 아트밸리 전체를 볼 수 있는 한길 아트 스페이스 3은 주택과 갤러리로 이루어진다. 동서, 남북 덩어리의 중첩은 안정적으로 헤이리 풍광을 받아들이는 전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2층 주거부와 갤러리 사이 공간, 3층에 적



<그림 2> 서측 정면

극적으로 마련한 전시공간은 주택의 벽이 되어줌과 동시에 주택 전체의 중심적인 활동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사이트는 풍부한 외부와의 연계공간과 전시공간으로 구성되고, 주택 내부는 석고보드와 온돌로 이루어져서 밝은 명도로 한쪽 면을 짙게 채우는 책들을 부산하지 않게 만든다. 벽으로 처리하지 않고 기둥들을 내부에 노출시켜 전면이 커튼월 구조로 특성은 다음과 같다.

- 경관 - 외피의 투명성을 통해 자연의 풍경을 도입함으로써 스케일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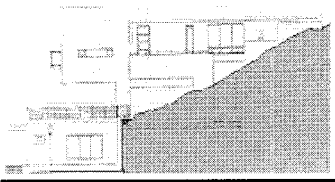


건물이 3층부<표 3>로 위치하고 있으나 산기슭인 지형을 이용하여 3층이 아닌 1층과 같은 지면의 연장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 활용하여 건물의 배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실의 전면을 유리로 처리하여 헤이리의 자연 풍경을 내부로 끌어들이도록 하였다. 3층은 또 다른 지면으로 존재하고, 이 공간은 자연 속으로 그 공간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구축의 연속성 - 대지의 연장에 의한 연속성

경사진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이 주택은 헤이리를 전망할 수 있고, 각 층은 나름대로 각각 대지의 연장으로 보이며 경사지의 잇점을 살린 계획이다. 1층에서 2층으로 오르게 되면 또 다른 대지를 만나고, 2층의 배면은 경사지에 접해 있으며 정면인 서쪽은 1층의 옥상으로서 정원을 꾸며놓아 1층과 마찬가지로 대지의 연장처럼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다시 3층까지 이어져 아래그림처럼 3층의 옥상은 경사지에 접하면서 대지의 연속으로 보이고 있다.

3)C3 Korea, 건축과 환경, 0311, p.70

<표 3> 한길 아트 스페이스 3의 개념표현특성

		
남측 입면도	2층:1층 옥상	3층 옥상

(4) 책 읽는 집

세 개의 산 사이 골짜기에 위치한 이 건물의 대지는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울창한 숲을 마주하고 있으며, 남서쪽으론 테마광장이 자리하고 있다. 선근과 필로티를 통해 전면의 숲과 후면의 녹지를 건물 안으로 받아들일도록 계획하여, 경사로를 따라 서서히 진입하면 떠 있는 경사로와 선근의 서로 다른 공간감을 느끼며 책장의 구조를 따라 집안으로 들어서게 된다. 건축주의 책이 만여권이라는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책을 수납할 수 있는 장소를 한곳에 집중하기 보다는 책을 담는 책장이 집을 이루는 구조체가 되어 1층과 2층을 연결시키며 내부의 열린 공간들을 구획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가족실에서 보여지는 산은 책장과 중첩되어 인지되고 있으며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 책장은 집안 곳곳에서 책을 접할 수 있고4) 건축특성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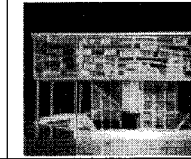

- 경계 - 투명성을 통한 내외부 경계의 소멸

누구나 들어오고 싶을 만큼 안이 보이도록 계획해 달라는 요구처럼 자연을 담고 자신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건물 상당부분의 외피가 유리로 되어 있다. 이 외피는 투명성을 통해 외부의 주변 환경을 주택 내부의 사람들에게 보여줌과 동시에 유리를 통해 책이 담긴 주택 내부의 풍경을 노출시킨다. 내부와 외부의 경계에서 건물과 랜드스케이프 사이의 매개 역할을 하고 주변의 자연 환경을 위해 외피는 외부로 향해 열려 있으며 주택 내부를 노출, 확장하는 동시에 외부의 풍경이 물리적으로 투영되는 스크린의 역할도 한다는 점에서 투명성을 통한 경계의 상실로 볼 수 있다.

- 경관 - 풍경으로서의 건축

이 건물은 집 자체가 하나의 책장과 같이 인지된다. 책장이라는 가구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지하층부터 지상 2층까지 연결된 철제 구조물이 책장의 역할과 구조체의 역할까지 하게 된다. 강철 철제 구조물 사이에 선반을 끼워 넣고 빼냄에 따라 공간을 열거나 닫을 수 있어 조형성과 실용성 까지 겸비 하고 있다.

<표 4> 책 읽는 집의 개념표현특성

		
외부의 풍경	경계의 상실과 프레임 사이에 놓인 책의 모습	

4)C3korea, 건축과 환경, 0311, No.231, p.110 수정 인용

3.2. 문화시설의 랜드스케이프 표현

(1) 헤이리 아트벨리의 커뮤니티 하우스

커뮤니티 하우스에는 헤이리 아트벨리 공동체의 총체적인 관리와 사무, 그리고 전시 및 이벤트 등의 행사를 담당하는 헤이리 사무국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외에 창고와 홀 등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 건축의 연속성 - 삽입에 의한 지면의 연속성과 경사진 판을 통한 대지의 연장 및 경계의 상실

넓은 6차선 도로와 맞닿아 있으며 이 도로와 단지 내의 땅은 5m정도 높이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 지형의 차이를 이용하여 대지 윗부분 주도로의 경계를 따라 연속적인 경사진 판을 통해 건물의 옥상으로 대지를 연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물의 지붕은 도로의 선과 교차되면서 건축물로 인지되기 보다는 대지의 연속으로 보이게 된다. 이것은 내부의 경사로로 이어지면서 외부는 다시 내부로 들어오게 된다. 이것은 부지가 갖는 전체 지형의 특성 자체를 하나의 형태로 전환하려는 의도이기도 한다. 이곳에서 공간은 더 이상 '안'과 '밖'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게 되며, 동시에 대지 자체를 추상화하는 작업의 연장선에 있게 되는 것이다.

- 경관 - 외피의 투명성을 통한 풍경으로서의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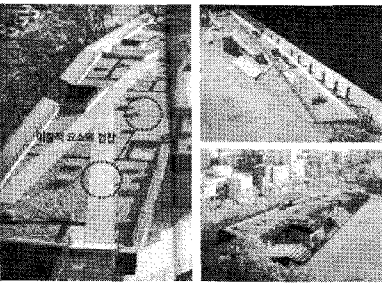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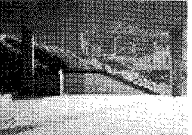
반사유리를 사용한 마을 쪽의 입면은 내부의 수직 부재를 감추고 외부의 풍경을 담으면서 이 풍경 위에 떠 있는 구조체를 강조하고 있다. 외피를 통해 시적인 풍경, 자연의 풍경을 도입하려는 특성을 찾을 수 있다.

- 불확정성 - 비움을 통한 불확정성

센터의 기본개념은 단일한 오브제로서의 건축물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경계가 없는 중성적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불확정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동서로 레벨이 다른 두 도로 사이에 위치하고, 대지의 윗부분에 있는 도로의 경계에서 경사진 판을 따라 들어오게 되면 남북으로 수평하게 구성된 동서 부지의 레벨차이로 생긴 사이공간을 볼 수 있다.

(2) 후명원 만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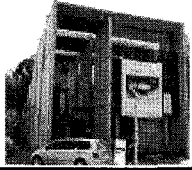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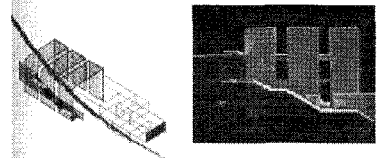
<표 5> 커뮤니티 하우스 개념표현특성

	
경사진 판에 의한 대지의 연장	이질적 요소들의 접합
	
레벨차에 의한 빈공간과 공동광장	

- 침투 - 보이드 구축을 통한 내외부 침투

만묘루는 앞쪽으로는 높지와 광장을 마주하고 있으며 후면은 경사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 건물의 중요한 축은 후면의 산에서 전면의 광장으로 이어지는 자연의 흐름이다. 자연의 부드러운 흐름의 곡선은 노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세 개의 틀을 관통하고 있다. 뒤쪽 산의 경사지에 건물이 묻히기 때문에 건물 전면은 1층 지하에서부터 시작하며 2층에 이르는 계단을 화단을 옆에 두고 빈공간(사이공간)을 이루고 있다. 이 공간이 바로 뒤편의 자연을 건물 앞광장으로 이어주는 통로이다. 세 개의 틀 사이사이에 비워있는 공간을 삽입함으로써 뒷산과 앞의 공지로 자연의 흐름을 이끌어 넘으로써 내외부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있다.

<표 6> 빈공간에 의한 내외부 경계 모호

	
빈공간에 의한 내외부 경계 모호	산과 광장을 이어주는 자연의 흐름과 세 개의 틀

(3) 건축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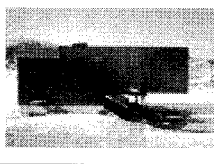
- 불확정성 - 비움을 통한 불확정성

이 건물은 주거공간과 더불어 다른 건축가들이 전시를 열거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헤이리가 추구하는 자생적인 문화예술의 교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건물 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외부공간에서도 여러 가지 행위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 주거부의 일부를 가동 없이 내민보로 처리하였고, 주거부를 받치는 1층은 투명유리를 사용하여 건물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으며 양 옆의 두 개의 매스 사이 공간은 계단식 테크와 노대 등의 비워진 부분들로 주민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이곳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다양한 행위를 유발하기 위한 장치로 존재한다.

- 침투 - 보이드 구축을 통한 건축물과 오픈스페이스의 침투

건축박물관은 인접한 도로와 같은 방향으로 놓여 있으며 능선의 흐름을 가리고 있다. 이러한 대지조건에서 자연의 흐름을 차단하지 않고 건물 후면의 풍경이 연결되도록 하되 가로의 특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띄우기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곳은 능선과 가로가 교차되는 끝 지점에 위치하며, 자연 풍경과 도시적 경관이 겹쳐지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대립적 관계를 내포하고 단순한 볼륨을 지니고 있는 매스를 들어 올림으로써 하부에 생성되는 오픈 스페이스와 매스는 도시의 축과 자연의 축의 대립구조로 설명될 수 있다. 이들은 빈 공간을 통해 서로의 영역이 침투되고 있다. 빈 공간을 통해 그 경계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이 공간은 공공공간으로 제공되면서 랜드스케이프 개념이 구현되고 있다.

<표 7> 건축박물관

		
매스와 오픈스페이스의 침투	불확정성 - 계단식 데크	침투 - 매스의 띄우기

(4) 카이스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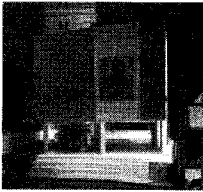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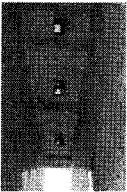

• 침투 - 보이드 구축을 통한 건축물과 오픈스페이스의 침투; 맥락적 확장

도시의 물리적 환경 사이에서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전면 이면도로에서 볼 때 갤러리라는 기능의 수용으로 인해 폐쇄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1층 부분은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전면 유리를 사용하여 상부의 콘크리트 매스는 떠 있는 듯한 느낌으로서 경계를 모호하게 해주고 있다. 건축물이 지니는 거대한 볼륨은 본질적으로 도시 공공 공간 조성에 역행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콘크리트 매스를 띄워 중앙 입구 부분에 빈공간을 삽입하고 도시의 흐름 속에 오픈스페이스 공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랜드스케이프 개념을 구현해내고 있다. 이는 주변 건물과의 상호접근에 대한 배려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전면부의 투명한 공간과 갤러리로 진입하기 위한 Hall 부분을 비어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사이공간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흐름과 거리의 일상, 도시의 이벤트를 담아내고 있다.

• 경관 - 도시의 풍경을 랜드마크함으로써 영토적 스케일 지향

4층 사무공간에서 옥외로 열려있는 문을 나서게 되면 콘크리트동 위의 옥상 위에 서게 되며,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옥상과는 다른 곳임을 느끼게 된다. 난간이 존재해야할 옥상임에도 그러한 안전막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난간이 줄 수 있는 시각적 차단을 없앴으므로 공간의 영토적 스케일은 도시 풍경 속으로 맥락이 확장되고 있다. 이곳은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없애주는 공간이고자 하며, 외부에 접해있는 공간이면서도 내부 전시공간보다 더욱 긴장감과 갈등이 존재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표 8> 카이스 갤러리의 개념표현특성

		
보이드에 의한 건축물과 오픈스페이스의 침투		도시풍경으로 영토적 스케일 지향

(5) 의재미술관




• 경관 - 투명성을 통해 자연 풍경을 도입; 풍경으로서의 건축 1층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연채광과 흰색의 벽면처리로 밝고

개방적인 느낌을 준다. 유리로 마감한 창에 프레임을 나는 것은 한국의 병풍을 상징하고 외부풍경은 병풍의 그림으로 표현하며, 계절마다 바뀌는 풍경의 아름다움을 병풍에 담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잘 나타나 있다. 이것은 작가의 랜드스케이프 개념이 실현된 것으로 풍경으로서 건축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 구축적 연속성 - 경사로를 통한 대지의 연장

약간 경사진 무등산 산길은 의재 미술관의 경사로로 이어지면서 대지는 건물내부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며 이 길은 또 다시 건물 내부의 경사로 연결되어 전시관 내부의 동선을 이끌어 주고 있다.

<표 9> 의재 미술관의 개념표현특성

		
풍경이 투영된 내부	건물 1층 내부 경사로	외부경사로

3.3. 공공·사무시설의 랜드스케이프 표현

(1) 현대고등학교

• 구축의 연속성과 경계 - 대지 연장을 통한 경계의 대립과 경계의 중재

인공적인 랜드스케이프를 조성하기 위해 지표면이 지붕을 향해 이동하면서 학교가 위치해 있는 고밀도의 도시 환경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잔디와 다양한 자연물들이 지붕의 풍경을 덮고, 건물이 놓이는 장소가 도시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연의 요소를 가지고 인공적 자연을 만들어 내고 있다. 자연의 구축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반영한 경사와 높이의 연장선으로 도시와 건물을 자연스럽게 이어주고 있으나 주변자연의 모습과 인공적 도시의 모습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이곳은 인공적 요소와 자연적 요소의 대립을 통해 경계를 분명하게 인식시키기도 하지만, 여러 성격이 교차되고 있는 도로변의 모서리에 위치하고 있음으로써 상업지구의 보도와 운동장 모두 경사로를 통해 건물표면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두 공간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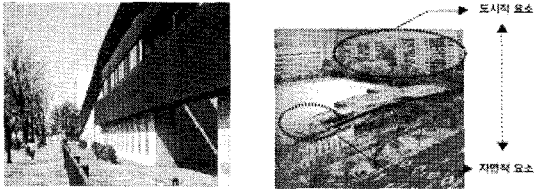


<그림 3> 대지 연장을 통한 경계-경사로

• 경계 : patch 기법을 통한 긴장감 추구

지면에서부터 옥상으로 연결된 경사로는 이 건물을 수평적 대지의 연장선으로 보이게 하고 있으며, 잔디와 다른 자연물들이 건물 지붕의 인공적인 풍경을 덮고 있다. 이것은 건축물의 물

질과 대지의 조건을 재정의하기 위함이다. 옥상을 잔디와 야생화로 녹화하여 학생들과 주민들을 위한 도시의 쉼터를 제공하는 한편 자연 학습의 효과도 추구하고 있으며, 상가와 아파트로 둘러싸인 지역에서 자연적인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재료를 덧대어 이곳에 길을 설정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패치 기법은 각기 다른 요소들을 인접시켜 구성해줌으로써 건축적 긴장감을 유발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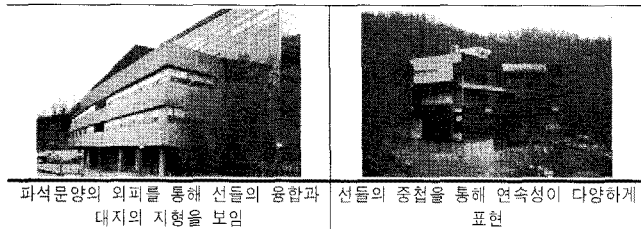


<그림 4> 자연과 도시의 대립을 통해 경계의 구축

(2)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연구소의 상징인 발굴의 도랑파기를 입체화하여 건물 형상과 배치에 도입하였으며 자연을 주로 한 산의 능선을 형상화하여 콘크리트 원 제품을 바탕으로 한 독특한 파석문양 노출 콘크리트를 연출하였고 나무를 그대로 사용한 삼목붙이기, 철을 바탕으로 한 갈마크린을 주로 사용하였다.

<표 10> 국립문화재연구소 랜드스케이프



• 유기성 - 지형적 건축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기존 땅이 가지고 있는 랜드스케이프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 흐름을 반영하도록 유도하였다. 도시의 성격을 흐트러지 않고 대지의 맥락을 놓치지 않기 위해 '도랑파기(문화재 발굴방법의 하나)⁵⁾ 방식을 도입하여 새로운 랜드스케이프를 만들고 있다. 이것은 건축가에게 대지가 만드는 선을 하나하나 찾아나가는 '탐구의 과정'을 통해 '흐름'을 찾는 발굴의 과정으로 연결되었으며 도랑파기를 통해 지형의 도출을 끌어내 미지의 것에 대한 건축적 접근을 실천한 사례이다. 이는 맵핑작업이 모호할 수 있다는 점에 선들의 겹침, 관계들의 분석, 기술적 공간 분할 등을 거치는 객관화와 모든 순간에 스며 있는 우연의 기회를 함께 이해해야 함을 일깨운다.⁶⁾ 도랑파기 방식을 이용하여 풀이한 랜드스케이프는 전면의 문양 콘크리트와 하부에서부터 이어지는 레이어의 중첩 등으로 다양하게

5)도랑파기란 문화재발굴을 위해 필요한 기회와 형성되는 추축을 통해 도달한 기점들을 연결하여 유물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6)C3 Korea 건축과 환경, 0406, No 238, p.37

표출되어 주위 환경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분출하고 있다. 이 건물은 두 개의 산등성이 사이로 경사진 계곡에 자리잡고 있으며 도로에서부터 공공공간, 연구공간, 복원기술공간, 기숙사 등 대지를 가로지르는 측면으로 여러 겹을 형성하고 있다. 건물과 랜드스케이프의 연속성도 다각도로 표현되어 수평적인 선형의 건물들이 형성하는 선들은 평면도와 단면도상에서 여러 층을 이루면서 선과 수평선, 백터와 랜드스케이프의 연속성, 여러 겹의 땅의 표피와의 관계를 보여준다.



<그림 5> 도랑파기 방법을 건축화

(3) Greeting Garden

• 경계 - 투명성을 통한 내 외부 경계 소멸

그리팅가든은 여주 인재원 단지의 중앙부를 이루는 연못과 아름다운 자연이 한눈에 인지되는 곳에 위치한다. 이곳은 방문자가 가장 먼저 방문하게 되는 연수생 접수공간과 휴식 공간의 프로그램이 반영된 곳이다.

내부와 외부의 개념의 소멸로써 자연과 건축의 일체화를 추구하고 유리로 된 건물의 입면은 양측의 시선을 투과시키면서 양방향으로 공간을 확장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경계 소멸을 통한 유기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이 건물은 건축물이라기보다는 앞과 뒤에 있는 자연을 매개해 주는 경계요소로서의 또 다른 자연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6> 투명성을 통한 내부와 외부의 경계 소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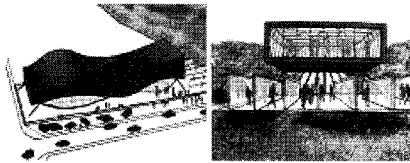
(4) 포토피아

하천에 면하는 긴 금속성 매스를 보여주고 있는 포토피아는 사진작가들을 위한 스튜디오와 리셉션 홀, 라운지, 몇 개의 투명 유리벽으로 구성된 옥외 전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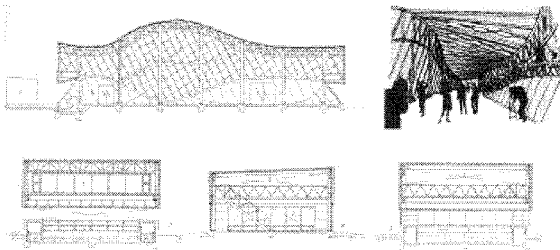
• 유기성 - 주변 자연의 맥락을 반영한 형태

뒤틀리며 움직이는 매스의 형태는 파주출판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의 맥락에서 추출되었다. 출판산업단지 내의 역동적이면서 순환적 흐름의 변환점에 위치하고 있는 포토피아는 이러한 대지의 흐름에 순응하며 계획되었다. 옥외전시장이 위치하고 있는 앞에는 천이 흐르고 있으며 이러한 대지의 역동적 흐름은 두 개의 커브로 이루어진 매스로 이어지고 있다. 더블 커브의 비상하는 듯한 역동적 매스는 내부공간에 움직임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살아 움직이는 듯한 금속성의 모습은 유기

체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랜드스케이프 개념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포토피아는 전면이 하천에 면해 있으며 투명한 유리벽에 의해 자연 경관을 바라 볼 수 있는 선큰 라운지는 자연의 풍경을 내부로 끌어들이면서 부유하는 듯한 모습으로 주변 자연 흐름을 반영한 건물의 외형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다.



<그림 7> 포토피아의 외관과 정면 라운지모습



<그림 8> 더볼커브 내부 투시도, 종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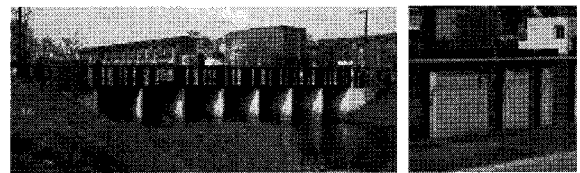
(5) 파주출판도시 제 5교량

기존의 교량 디자인이 매우 단순한 교량이거나 아니면 조형성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극단적 이었다면, 이러한 교량에서 파생할 수 있는 대립적 성격으로 이 교량디자인은 다리를 하나의 랜드스케이프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는 사례이다. 교량 디자인은 구조를 과장하여 시각적인 강렬함으로 디자인되는 경향이 대부분이며 사회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오브제를 만들기 위한 칼라트라바류의 결과를 선호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파주출판도시의 과업 중 교량의 기본구상은 결정되어 있어, 조경과 건축의 인프라 속성을 동시에 가지며 적절히 도시의 흐름을 이어주는 조형 언어를 추구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기본의 콘크리트를 확장하고 코르텐과 아연의 레이어를 덧붙이는 단위 구조, 그리고 그것이 교대하는 분산의 질서를 고려하였다.

• 경관 - 풍경으로서의 건축

제 5교량은 랜드스케이프는 토목, 건축, 조경이 별도가 아니라 하나로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보기 위한 전략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교량이 가지고 있는 공공적 성격을 반영하듯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하여 교량의 구조는 가장 평범한 차원에서 반영되었으며 여기에 난간 좌우로 덧붙여진 코르텐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레이어로 도시의 기간시설인 교량이 가진 조건과 조형 가능한 범위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루어진 교량의 모습은 단순함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코르텐 판과 판 사이의 틈을 통해 자연의 흐름을 여과하며 하나의 풍경처럼 존재하고 있다. 또한 그 틈 사이로 보이는 하천과 자연의 풍경을

끌어들이고 있음으로써 랜드스케이프 개념을 구현해 내고 있다.



<그림 9> 풍경으로 존재하는 교량의 모습과 틈속의 자연

3.4. 상업 시설의 랜드스케이프 표현

(1) 딸기테마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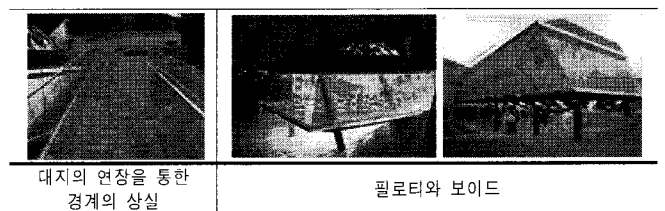
• 구축의 연속성과 경계 - 경사진 판에 의한 대지의 연장을 통해 경계 상실

전면도로에서 이어져 경사진 판을 따라 올라가면 건물의 옥상에 다다르게 된다. 지표면이 지붕을 향해 이동하면서 새로운 공간을 형성하고 이는 대지의 연장을 통해 인공의 자연을 구축하는 지형학적 방법으로 랜드스케이프 개념을 구현한다.

• 침투 - 보이드를 통한 구축물과 오픈스페이스의 침투

건물의 정면은 마을 쪽에서 출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배면은 헤이리 아트벨리의 외곽도로가 지나고 있다. 마을의 풍경들을 지나 딸기테마파크 앞에 서게 되면 녹화된 지붕과 그 아래 유리로 되어있는 투명한 볼륨을 접하게 된다. 약간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는 이 건물 보이드의 구축을 통해 공공 공간을 제공해주며 건물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표현 방법을 쓰고 있다.

<표 11> 딸기테마파크의 개념표현특성



(2) 쌈지길

• 구축적 연속성 - 경사진 판에 의한 대지의 연장을 통한 연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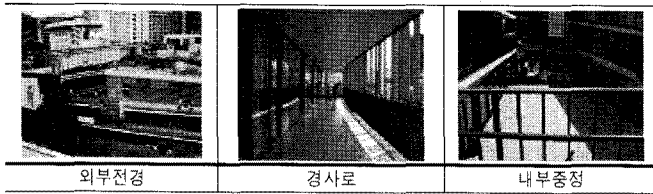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길이 인사동다움이라면 이 길의 의미를 부각시켜 하나의 구축물이 아닌 길을 연장하기 위한 의도로 쌈지길은 계획되었다. 쌈지길의 핵심인 이 경사로는 전체 길이가 인사동 길의 절반에 해당되는 500m 정도이다. 결과적으로 인사동길에서 연결된 아주 완만한 경사를 가진 길을 따라 가게를 들리며 가운데 마당을 보고 천천히 2층의 마당으로, 이곳은 완만한 경사를 지니고 있는 길로 옥상까지 이어지게 된다. 수평적인 인사동 길은 쌈지길에 와서 수직적으로 연장되고 길들과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다. 건물의 매스는 크에도 건물을 길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크기의 육중함을 완화시키고 있다. 쌈지길은 랜드스케이프를 표방하며 건축되어지진 않았지만 인사동의 길을 건물 안으로 연장하여 경사진 판을 통해 옥상까지 이어지게 함으로써 연속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랜드스케이프

7)C3korea, 건축과 환경, 0511, No. 255, p.81

8)C3 Korea, 건축과 환경, 0406, No. 238, p.129

개념을 실현 시키고 있다.

<표 12> 뽀지길의 개념표현특성



(3) 파주 현책방 - 미로의 서가도시

파주 아시아 출판문화정보센터는 파주출판도시 건축물 중 가장 공공성이 높고 중심적인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파주출판도시의 건축지침에 의하면 도시 전체에서 중심적·지배적 장소를 배제하기 때문에 건물은 무표정하고 투박하게 계획되었으나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무게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2층 데크를 거쳐 도달하게 되는 현책방은 땅위에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유인하는 장치로서 존재하도록 계획되어졌으며 건축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 경관 - 풍경으로서의 건축

불규칙한 배열을 하고 있는 코르텐 박스들은 무인서가이다. 박스 위에 지나가고 있는 철골 지붕 프레임은 형형색색의 배너가 걸려 축제 장소처럼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기도 한다. 코르텐으로 마감된 서가는 서로 다른 높이를 가지고 있어 멀리서 보면 도시 길거리의 풍경을 연출하기도 한다. 야외에 놓인 현책방의 서가(책장)는 그 자체만으로 이 공간을 파주출판도시 내에 존재하는 길거리의 풍경으로 치환된다. 이러한 도시풍경은 실내에 위치하고 있는 현책방으로 연결되어 역시 높낮이가 다르게 된 실내의 서가와 접속한다.



<그림 10> 풍경으로의 건축전경

4. 랜드스케이프건축 개념경향

4.1. 시설별 랜드스케이프 경향

주거, 문화, 공공, 상업 시설 별로 랜드스케이프 개념의 구현 방법을 조사한 결과 <표 13>과 같다.

<표 13> 시설에 나타난 랜드스케이프 유형 (단위 %)

	경계	침투	경관	연속성	불확정성	유기성
주거시설	43		43	14		
문화시설		30	30	20	20	
공공사무시설	43		14	14		29
상업시설		25	25	50		

주거 시설에서는 랜드스케이프 유형 방법 중 경계의 소멸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유리나 같은 투명성 소재를 통해 내외부의 경계를 소멸시킴으로써 외부의 자연의 풍경을 도입하거나 내부의 풍경을 외부로 노출시키고자 하였다. 즉 주택의 투명성은 외부의 풍경만을 보기위한 투명성의 추구가 아니라 내부의 외부화, 외부의 내부화라는 양방향의 소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어지고 있었다. 한편 헤이리 스튜디오나 책 읽는 집과 같이 투명성을 통한 경계의 소멸뿐만 아니라 주택외관이 외부에 보여지는 것 또한 중요시 여기면서 건물이 자연속의 풍경으로서 존재하도록 계획되어 진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문화 시설은 침투, 경관, 연속성, 불확정성 등 랜드스케이프 유형이 다양하게 실험되고, 공공·사무 시설의 경우 주로 경계의 개념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어서 유기성, 다음으로는 경관과 연속성의 유형이 실현되고 있다. 상업시설은 연속성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침투와 경관의 방법을 통해 랜드스케이프 개념을 건축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시설별 랜드스케이프 구현 방법

분류	작품명	유형	구축 방법
주거	H주택	경계	투명성을 통한 내외부의 경계 소멸
	헤이리 스튜디오	경계	투명성을 통한 내외부의 경계 소멸
		경관	풍경으로서의 건축
	한길아트스페이스3	경관	투명성을 통해 자연의 풍경을 도입함으로써 영토적스케일 확장
		연속성	삽입에 의한 지면의 연속성
책 읽는 집	경계	투명성을 통한 내외부 경계 소멸	
	경관	풍경으로서의 건축	
문화	커뮤니티하우스	연속성	경사진 판에 의한 대지의 연장에 의한 연속성과 경계의 소멸
			삽입에 의한 지면의 연속
		경관	반사유리에 의한 외부의 풍경 연출 - 풍경으로서의 건축
		불확정성	비움에 의한 불확정성
	만모루	침투	보이드 구축을 통한 내 외부 침투
	건축박물관	불확정성	비움에 의한 불확정성
침투		보이드 구축을 통한 구축물과 오픈스페이스의 침투	
카이스갤러리	침투	보이드 구축을 통한 구축물과 오픈스페이스의 침투	
	경관	도시의 풍경을 랜드마크함으로써 영토적 스케일 확장	
의재미술관	경관	투명성을 통한 자연의 풍경 도입	
	연속성	경사진 판에 의한 대지의 연장	
공공·사무	현대고등학교	연속성	경사진 판에 의한 대지의 연장
		경계	도시와자연, 인공과 자연의 경계구축
		경계	patch 기법을 통한 긴장감 추구
	국립문화재연구소	유기성	땅의 성격을 이용
	그리팅가든	경계	투명성을 통한 내외부 경계 소멸
파주출판도시 제5교량	포도피아	유기성	자연의 맥락을 이용
		경관	풍경으로서의 건축
		연속성	경사진 판에 의한 대지의 연장
상업	딸기테마파크	연속성	경사진 판에 의한 대지의 연장을 통한 연속성과 경계의 소멸
		침투	보이드 구축을 통한 구축물과 오픈스페이스의 침투
	뽀지길	연속성	경사진 판에 의한 대지의 연장
현책방	경관	도시의 풍경으로서의 건축	

4.2. 유형별 랜드스케이프 경향

(1) 침투에는 보이드 구축을 통한 구축물과 오픈스페이스의 경계 침투, 도시와 자연의 범주가 전이되면서 이루어지는 침투, 실제와 가상의 재현의 중재를 통한 침투가 있다. 조사 대상의 경우는 모두 보이드를 통해 매스와 오픈스페이스의 침투를 통해 서로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방법으로써 개념을 표현하고 있다.

(2) 랜드스케이프 건축에서 추구하는 중요한 개념으로서 다양한 행위와 프로그램을 수용하기 위한 불확정성을 들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불확정성의 구체적인 구현 방법으로써 프로그램, 비움, 동선에 의한 불확정성과 경계의 구축을 통한 불확정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러나 조사대상의 경우 비워있는 공간을 삽입함으로써 다양한 행위들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불확정성을 실현하고, 해외 사례가 동선과 프로그램, 형태 등으로 불확정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3) 경관에 의한 랜드스케이프의 구체적 구현방법에는 도시의 풍경을 끌어오는 방법과 경사로를 통해 대지를 연장하는 방법, 투명성을 통해 내부의 풍경을 외부로 표현하는 방법, 외피의 투명성을 통해 자연의 풍경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4) 랜드스케이프 건축에서 경계는 궁극적으로 경계의 대립 관계를 통해 경계를 소실하려는 방향과 경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계의 유형에는 경계 중재를 통한 경계를 소실하는 방법과 내부공간의 인식적 경계 소실, 투명성을 통한 내부와 외부의 경계 소실, 물리적 요소의 경계 소실, patch에 의한 경계의 강화에 따른 긴장감 추구 등 여러 구현 방법들이 있다. 경계의 다양한 구현 방법들 중 분석 대상에서는 투명성에 의한 내부와 외부의 경계 소멸을 통해 랜드스케이프 개념을 구현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현대 고등학교 같은 경우 도시와 인공적 자연을 대립시켜 경계를 구축하고 다시 이를 경사로를 통해 경계를 무화시키는 방법으로 나타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질적 재료의 조합을 통해 경계를 강화시키는 패치 기법도 나타나고 있다.

(5) 본 연구에서는 유기성에 의한 랜드스케이프 구축방법으로는 landform과 같은 방법으로 자기조직화에 의한 방법과 땅의 역사성을 표현하는 방법 등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조사 대상에서는 실험을 통해 구체적으로 땅의 유기적 특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경우 땅의 성격

<표 15> 유형별로 구체적인 구현 방법

침투	보이드 구축을 통한 구축물과 오픈스페이스의 침투  만모루	 건축박물관	 카이스갤러리	 딸기테마파크	불확정성	비움에 의한 불확정성  건축박물관	 커뮤니티하우스
경관	풍경을 담은 틀로서의 존재  헤이리스튜디오	외피 투명성을 통해 자연의 풍경을 끌어들이므로써 영도적 스케일 확장  한길 아트스페이스3	책장으로서의 풍경을 연출  책 읽는 집	반사유리에 의한 외부의 풍경 연출  커뮤니티하우스	난간을 제거함으로써 도시의 풍경을 끌어들이므로써 도시 영역으로 맥락적 확장  카이스갤러리	투명성을 통한 자연의 풍경 도입  의재 미술관	도시의 풍경으로 존재하는 다리  피주출판도시 제5교량
	투명성을 통한 내부와 외부의 경계 소멸  H 주택	 헤이리스튜디오	 책 읽는 집	 그리팅가든		도시와 자연, 인공과 자연의 경계구축  현대고등학교	patch 기법을 통한 긴장감 추구  현대고등학교
유기성	땅의 성격을 이용과 발굴 행위의 추상화방법을 통해 구현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의 맥락을 반영한 건축의 형태  포토피아	연속성  의재미술관	경사진 등산로, 경사판을 연결하여 실내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짐을 통해 연속성을 추구  의재미술관			
연속성	경사진 대지의 특성을 활용하여 각 층의 바닥을 지면에 삽입함으로써 지면의 연속을 추구  한길아트스페이스	지면 레벨차를 이용하여 도로와 건물 옥상의 레벨을 맞추므로써 건물의 옥상과 도로가 연속성-외부의 경사도가 1층까지 연결되어 연속성을 추구  커뮤니티하우스	도로에서부터 경사진 판을 통해 대지를 옥상까지 연장함으로써 연속성 추구  현대고등학교	 딸기테마파크	 쌈지길		

과 발굴할 때 이용되는 도량과기 수법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땅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재구성하였다고 보고 유기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포토피아의 경우 자연의 흐름을 반영한 유연한 형태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유기성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 랜드스케이프 유형 분류에서 대지가 지니는 자연적 특성이 연장되는 연속성의 구축과 외부에서부터 내부까지 경사로가 연속됨으로써 지면의 연속을 상징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연속성의 추구, 매스를 지면에 삽입시킴으로써 지면의 연속을 추구하고 있다

4.3. 랜드스케이프 경향 분석

한국현대 건축에 나타나고 있는 랜드스케이프적 경향은 주거, 문화, 공공, 상업시설 등 여러 시설분야에서 다양하게 개념이 추구,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현대 건축에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랜드스케이프 개념이 특정한 시설유형에만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구현 방법<표 15>을 세분화하면 1)침투의 경우 보이드를 통해 구축물과 오픈스페이스의 침투를 통해 관념적으로 경계를 무화시키려는 방법만이 보이고 있으며, 2)경관의 경우 외피의 투명성을 통해 자연 환경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3)경계의 경우 주로 투명성을 통해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4)불확정성의 경우 비움에 의한 불확정성만이 나타나고 있다. 5)연속성의 경우는 경사진 판에 의한 연속성과 삽입을 통한 지면의 연속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6)유기성의 경우는 지형의 흐름이나 주변 자연 환경의 맥락을 반영하여 유기적 특성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5. 결론

랜드스케이프 개념은 그 실천의 범주에 있어서도 일정한 한계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점에서 다발적으로 촉발된 것이며. 이와 같은 건축의 시대적 경향에 우리나라 신진 건축가들을 중심으로 랜드스케이프의 개념이 적용된 다양한 건축적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국내에서 계획되고 있는 랜드스케이프 개념 하에 계획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평가와 우리나라의 현대 건축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아직 설정되어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연과 인간, 풍경으로서의 랜드스케이프 개념을 표방한 우리나라의 랜드스케이프 건축물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의 현대 건축에서는 하나의 특정한 시설만이 아

닌 다양한 장르에서 랜드스케이프 건축적 개념이 시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랜드스케이프 6가지 재유형화 개념에 따라 그 특성을 살펴본 결과 각 유형별로 다양한 구현방법이 시도되고 있지 못하고 특정한 방법을 선호하며 구현방법의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대 건축의 다양한 경향 중 하나로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랜드스케이프적 건축은 현대 과학이론과 철학, 예술에 기반을 두고 도시와 자연과의 맥락을 구체화하기 위한 건축적 시도이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랜드스케이프의 개념은 아직 그 구체적인 구현 방법들에 있어서 다양하며 실험적 방법들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파주출판산업단지나 헤이리 아트벨리와 같이 대규모적으로 랜드스케이프 개념을 내세우며 이루어지는 건축적 흐름은 분명 자연과 인간, 도시와 자연의 맥락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랜드스케이프 건축이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견인력을 하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며, 랜드스케이프 건축이 이론적으로 정립될 수 있는 계기를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1. 강형규, 현대건축의 인공화된 자연도입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5
2. 배우영, 랜드스케이프 건축에 나타난 경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4
3. 유승범, 현대건축에서 지형적 건축의 형성 배경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2002
4. 윤정원, '흐름'을 통해 '도시의 건축화'를 조직하는 체계와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3
5. 홍지학, 현대건축에 나타난 landscape 개념의 층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3
6. 육광동, 판의 조작에 의한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2권 2호, 2002.10
7. 윤갑근·김기완, 랜드스케이프 건축개념의 재유형화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6권 2호 통권61호, 2007. 4
8. 이영수, 현대건축에 있어서 생태 패러다임에 기초한 자기조직화의 적용에 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권 2호, 2004.2
9. 이인원, Landscape Architecture 의 불확정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5권 1호, 2005.10
10. 이준화, 현대건축에 나타나는 불확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21권 2호, 2001
11. 김종규, 랜드스페이스, 건축과 환경, 9605
12. 김광현, 건축과 자연, 이상건축, 9907
13. C3 Korea 건축과 환경, 0210, 0311, 0406, 0506, 0508,
14. Charlds Jencks, Landform Architecture-Emergent in the Nineties : Architecture Design Vol 67, 1997
15. Charles Jencks, New paradigm in Architecture
16. Eduard Bru, 'The long-distance Gaze', New Territories, New Landscape, ACTAR, 1997
17. El Croquis 77(i)+99 : Kazuyo Sejima + Ryue Nishizawa, El Croquis Editorial, 2000

<접수 : 2008. 6. 23>